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Vol.15, No.3, June (2026), pp.351-362
ISSN 2384-101X(p) 2672-1163(e) *http://dx.doi.org/10.29056/jncist.2026.06.05*

공연예술인의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의 구조적 관계: 코로나제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efficacy,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Performing Artists: The Moderating Effect of COVID-19 Constraints

김초하[1]

Cho-Ha Kim[1]

요 약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아울러 코로나제약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0세 이상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배포된 300부 중 287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SPSS Amos20.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연예술인의 자기효능감은 공동체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 과 공연예술인의 공동체의식은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 공연예술인의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코로나제약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까지 모든 경로가 채택되었다. 아울러, 코로나제약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나타난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의 경로계수 값을 비교해 보면, 코로나제약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코로나제약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로써 예술학 분야의 새로운 이론적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핵심어 : 공연예술인,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코로나제약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efficacy,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d subjective well-being perceived by performing artists, and further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COVID-19 constraint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professional performing artists aged 20 or older, and 287 out of 300 distribu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For hypothesi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performed using SPSS Amos

1 Department Art & Cultural Management,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Graduate Student]
e-mail: llkimchohall@naver.com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3년 대한민국의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NRF-2023S1A5B5A17087948)

Received(April 15, 2026), Review Result(1st: May 2, 2026), Accepted(June 13, 2026), Published(June 30, 2026)

© 2026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20.0. The results supported all proposed hypotheses: Hypothesis 1, that self-efficacy has a positive effect on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Hypothesis 2, that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has a positive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and Hypothesis 3, that COVID-19 constraints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addition, a comparison of path coefficients between groups with high and low levels of COVID-19 constraints revealed that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was weaker in the high-constraint group than in the low-constraint group. These findings provide meaningful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Furthermore, by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COVID-19 constrain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perceived by performing artist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research in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Keyword : Performing artist, Self-efficacy,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Subjective Well-Being, COVID-19 Constraints

1. 서론

2019년 말 시작된 COVID-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후 델타 및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해 장기화된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하였다. 최근에는 팬데믹이 점차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감염병과 같은 전 지구적 재난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공연예술과 같이 대면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는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 발생 시 다시금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발생 가능한 유사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공연예술인의 심리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해 보인다.

공연예술은 개인의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성과가 도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수준의 심리적 요인이 집단 내 관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능력에 대해 가지는 신념으로, 행동의 선택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Bandura [1]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며 집단 내 상호작용에서도 긍정적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집단 내 경험으로 확장되어 공동체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사회적 참여와 집단 내 몰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1-3], 이러한 특성은 구성원 간 관계 형성과 공동체적 인식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일련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공동체의식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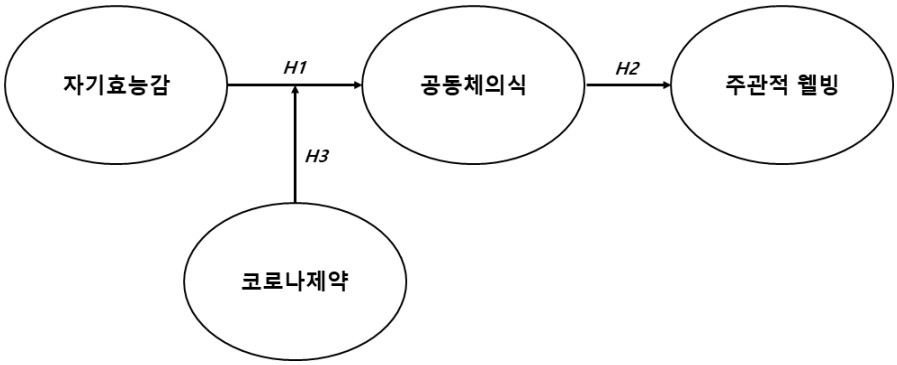
한편, 공동체의식은 개인의 주관적 웰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공동체 내에서 형성된 소속감과 정서적 유대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주관적 웰빙으로 이어진다 [5]. 따라서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은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조적으로 연결된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의 관

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나아가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코로나제약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을 연구하고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의 사이에서 코로나제약의 조절효과를 탐색적 수준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수예술분야 종사자 중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0세 이상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통하여 얻은 자료들은 IBM SPSS Statistic 26.0 for windows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행하고, IBM SPSS Amos 26.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분석을 실행하였다. 또한 코로나제약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H1. 공연예술인의 자기효능감은 공동체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공연예술인의 공동체의식은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공연예술인의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코로나제약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2.2.1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기효능감은 공연예술인이 어떠한 과제를 잘 수행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기의 능력을 동기화하는 일종의 자신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6],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7].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척도는 Bandura [1]가 제시한 척도를 고동우·김병국 [8]이 수정·보완 하고, 김초하 [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보완한 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2.2.2 공동체의식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은 예술인의 공통된 집단의식 상태로 정의되며, 이는 소속감, 영향관계, 욕구충족, 친밀감 공유 등을 의미한다 [5]. 본 연구의 측정척도는 McMillan & Chavis [5], Peterson & Speer & McMillan [10], 박가나 [11]의 측정 문항을 고동우 [12]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였다. 총 7개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3 주관적 웰빙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관적 웰빙은 공연예술인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 긍정정서, 부정정서를 나타내는 공연예술인의 주관적인 심리상태로 정의된다. 측정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삶의 만족은 Diener & Emmons & Larsen Griffin [13]이 개발한 척도를 김초하 [14]의 연구에서 최종 수정·보완한 척도를 참고하였고,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척도는 Warr & Barter & Brownbridge [15]의 도구를 류연지 [16]가 수정·보완하고, 김초하 [14]가 최종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4 코로나제약

본 연구에서 코로나제약은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의 제약 그리고 위협, 염려 등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의 측정척도는 고동우 [12]의 연구를 바탕으로 김초하·문상정 [17]의 연구에서 측정한 바 있는 총 3개의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실증분석

3.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표 1]에 정리하였다. 연령, 학력, 전공분야, 활동경력, 연간평균소득, 거주지역, 성별, 협회가입여부 등의 기술통계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87)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287)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87	30.3	학력	고졸	14	4.8
	30대	115	40.1		대졸	166	57.9
	40대	49	17.1		대학원재학	12	4.2
	50대	21	7.3		대학원 졸업	91	31.7
	60대이상	15	5.2		기타	4	1.4
전공 분야	음악	37	12.9	활동 경력	2년미만	29	10.1
	전통예술	44	15.3		2-3년	19	6.6
	연극	76	26.5		4-5년	26	9.1
	무용	130	45.3		6-7년	30	10.5
					8-9년	24	8.4
					10년이상	159	55.4
연간 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10	38.3	거주 지역	서울	132	46.0
	500만원미만	74	25.8		인천/경기	79	27.5
	1천만원미만	40	13.9		대전/충청	20	7.0
	2천만원미만	32	11.1		광주/전라	28	9.8
	3천만원미만	16	5.6		대구/경북	8	2.8
	4천만원미만	8	2.8		부산/경남	5	1.7
	5천만원미만	3	1.0		강원	2	0.7
	5천만원이상	4	1.4		제주	13	4.5
성별	남자	73	25.4	협회 가입 여부	가입	140	48.8
	여자	214	74.6		미가입	135	47.0
					기타	12	4.2

3.2 측정척도의 단차원성 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척도에 대하여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신뢰도평가에 앞서 문항분석법에 의하여 각 개념별로 측정문항의 전체합산치와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항목들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탐색적 요인분석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동체의식에서 1개 문항이 제거되었다. 더불어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요인별 각각 .831(자기효능감), .824(공동체의식), .845(삶의만족), .900(긍정정서), .871(부정정서), .891(코로나제약)로서 내적 합치도는 탐색적 수준의 연구라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척도의 항목에 대하여 순화과정을 실시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서 각 척도의 단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표 2]와 같다. 이 분석과정에서 단일 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들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자기효능감(4번, 6번 문항), 공동체의식(1번, 4번 문항), 긍정정서(1번 문항)에서 항목을 제거한 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GFI, NFI, CFI 계수가 0.90이상으로 제시되고 있

어 적합도 지수들이 매우 만족스러운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척도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의 단차원적 요인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척도의 단차원성

[Table 2] Uni-dimensionality of measurement scales

문항	estimate	t-value	C.R
F1. 자기효능감			.858
1.나는 장기적인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책을 찾는일에 자신이 있다	.793	-	
2.나는 내 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에 대응할 자신이 있다	.791	11.741	
3.나는 어떠한 목표라도 달성할 자신이 있다	.685	10.675	
4.나는 나의 능력에 대해 자신 있다(#)	-	-	
5.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외부사람들과 자신있게 접촉할 수 있다	.560	8.749	
6.나는 동료들에게 내가 가진 정보를 자신 있게 제공할 수 있다(#)	-	-	
x2=2.135(p=.344), df=2, GFI=.996, AGFI=.981, RMR=.010, NFI=.994, CFI=1.000			
F2. 공동체의식			.848
1.내가 노력하면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2.우리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단결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73	-	
3.이 사회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632	7.586	
4.우리사회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주고 있다(#)	-	-	
5.나는 우리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	.588	7.246	
6.우리 사회에는 고유한 정신이나 질서가 있다	.711	8.077	
7.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	.695	7.993	
x2=20.522(p=.001), df=5, GFI=.971, AGFI=.914, RMR=.026, NFI=.942, CFI=.955			
F3. 삶의만족			.871
1.대체적으로 나는 내가 바라는 생활을 하고 있다	.842	-	
2.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848	15.936	
3.현재 나는 아주 좋은 생활조건을 갖고 있다	.706	12.799	
4.이제까지의 삶을 통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성취하였다	.723	13.187	
5.만일 내 삶을 다시 산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겠다	.522	8.896	
x2=12.891(p=.024), df=5, GFI=.982, AGFI=.947, RMR=.025, NFI=.979, CFI=.987			
F4. 긍정정서			.889
1.힘이 넘친다고 느낀 적이 있다(#)	-	-	
2.나의 생활이 굉장히 즐겁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867	-	
3.굉장히 신난다고 느낀 적이 있다	.941	21.762	
4.기분이 최상이라고 느낀 적이 있다	.848	18.792	
5.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적이 있다	.604	11.269	
x2=11.400(p=.003), df=2, GFI=.981, AGFI=.907, RMR=.023, NFI=.985, CFI=.987			
F5. 부정정서			.863
1.무언가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워 한 적이 있다	.730	-	

2.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워 한 적이 있다	.788	12.732	
3.우울하거나 매우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860	13.778	
4.몹시 피곤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616	9.929	
5.울고 싶은 적이 있다	.803	12.967	
x2=36.927(p=.000), df=5, GFI=.952, AGFI=.856, RMR=.041, NFI=.949, CFI=.955			
주관적 웰빙(second-order factor analysis)			
x2=222.076(p=.000), df=74, GFI=.899, AGFI=.857, RMR=.060, NFI=.905, CFI=.934			
F6. 코로나제약			.924
1.코로나 19 감염확산으로 귀하는 어떤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협을 느끼나요?	.734	-	
2.코로나 19로 인해 '개인적인 삶의 위함'에 대하여 요즘 귀하는 얼마나 염려하고 계신가요?	.881	15.240	
3.코로나 19 발생이후 지금까지, 귀하의 일상생활은 코로나 이전과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965	15.432	
x2=.000(p= -), df=0, GFI=1.000, AGFI= -, RMR=.000, NFI=1.000, CFI=1.000			

주1. #은 삭제된 문항임

3.3 측정모델의 평가

Anderson & Gerbing [18]이 제시한 2단계 접근방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그리고 코로나제약을 포함하는 측정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Amos 20.0으로 추정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GFI 값이 .90이상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되는 측면도 고려되어 본 연구의 측정모델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χ^2=159.103(p=.000), df=84, χ^2/df=1.894, GFI=.925, AGFI=.892, RMR=.042, NFI=.904, CFI=.952, RMSEA=.056). 모든 척도의 Cronbach α값이 .613이상으로 탐색적인 수준에서 신뢰수준을 보여주었다. 또한, 구성개념 신뢰도 역시 .803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척도 분산 중 특성(trait)에 설명되는 비율을 뜻하는 평균분산 추출 값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자기효능감은 .605, 공동체의식은 .528, 주관적 웰빙은 .575, 코로나제약은 .805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들 척도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또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8][19].

[표 3] 측정모델의 평가결과

[Table 3] Evaluation result of the measurement model

구성개념	구성개념간 상관관계a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1.자기효능감	1.000			
2.공동체의식	.332	1.000		
3.주관적 웰빙	.644	.456	1.000	
4.코로나제약	.194	.195	-.052	1.000

Cronbach's α	.798	.764	.613	.891
구성개념 신뢰도	.858	.848	.803	.924
AVEb	.605	.528	.575	.805
모델 적합도	χ^2=159.103(p=.000), df=84, χ^2/df=1.894, GFI=.929, AGFI=.899, RMR=.042, NFI=.904, CFI=.952, RMSEA=.056			

주 : a : 상관계수의 표준오차 추정구간(two-standard error interval estimate)은 1을 포함하지 않음.
b :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한편, 척도의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2가지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첫째, 보다 엄격한 방법으로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구성개념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20]. 이 평가에서 [표 3]의 6개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AVE값을 초과하지 않아 모두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척도는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4 연구모델의 평가 및 가설의 측정

3.4.1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에 관한 가설 검증(H1)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에 대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이론변수들간의 경로계수와 c.r값을 확인하였다. 가설의 검증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공동체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1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경로계수는 .396을 나타내었고, c.r값은 4.837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표 4] 제안모델의 추정결과
[Table 4] Estimation results of the proposed model

경로(가설)	표준화된 계수값	표준오차	C.R	p-value
자기효능감 → 공동체의식(H1)	.396	.054	4.837	.000***
공동체의식 → 주관적 웰빙(H2)	.538	.117	5.504	.000***
r2 (공동체의식) = .157, r2 (주관적 웰빙) = .290				
모델 적합도	χ^2=147.979(p=.000), df=52, χ^2/df=2.846, GFI=.922, AGFI=.883, RMR=.057, NFI=.862, CFI=.897, RMSEA=.080			

주: *** : p<.001

3.4.2 공동체의식과 주관적 웰빙에 관한 가설 검증(H2)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은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2를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경로계수는 .538을 나타내었고, c.r값은 5.504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또한, r2에서 볼 때 내생변수인 공동체의식과 주관적

웰빙은 15.7%, 29.0%가 각각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3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코로나제약의 조절효과 검증(H3)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코로나제약 수준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우선 응답자들을 코로나제약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코로나제약 측정변수의 평균값(4.09)을 측정하여 평균보다 높은 집단(143명)과 낮은 집단(144명)으로 분류하였다. 코로나제약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X2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코로나제약 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 값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경로계수를 free로 정하고(free 모형), 두 구성개념간의 경로계수 값이 동일하다는 제약모형과의 X2변화량을 살펴보았다. 검증결과 △X2(1) = 5.678로 두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아울러 [표 5]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제약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나타난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의 경로계수 값을 비교 했을 때, 코로나제약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코로나제약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Table 5] Result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COVID-19 Constraints

<table>
<tr><td rowspan="4">H3</td><td>비제약모형</td><td colspan="3">X2 = 194.354(p=.000), df = 104, X2/df = 1.869, GFI = .902, AGFI = .853, RMR = .060, CFI = .906</td></tr>
<tr><td rowspan="3">제약모형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td><td colspan="2">X2 = 200.032(p=.000), df = 105, X2/df = 1.905, GFI = .898, AGFI = .849, RMR = .064, CFI = .901,
△X2(1) = 5.678(p=.017)</td><td rowspan="3">채택
(p<.05)</td></tr>
<tr><td>높은 집단</td><td>표준화계수 = .239,
c.r = 2.101(p=.036)</td></tr>
<tr><td>낮은 집단</td><td>표준화계수 = .531,
c.r = 4.610(p=.000)</td></tr>
</table>

4. 결론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공연예술인의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코로나제약의 조절효과를 탐험적 수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하여 전문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Amo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공동체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에 대한 분석 결과, 경로

계수는 .396으로 나타났고 c.r값은 4.837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공동체의식이 주관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에 대한 분석 결과, 경로계수는 .538로 나타났고 c.r값은 5.504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코로나제약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3을 제안한 후,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경로계수를 free로 정하고(free 모형), 두 구성개념간의 경로계수 값이 동일하다는 제약모형과의 X2변화량을 살펴보았다. 검증결과 $\triangle\chi^2(1) = 5.678$로 두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아울러, 코로나제약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한다. 나아가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코로나제약의 조절 효과를 탐험적 수준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최초의 연구로서, 예술학 분야에서 심리적 변수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둘째,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의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공연예술인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공연예술인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 마련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공연예술 정책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각 분야별 후속 연구가 가능하며, 예술인과 정책 주체 간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통계적 검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나, 공연예술인을 대상한 탐색적 수준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측정척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전체 예술 분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예술 분야를 포함한 연구를 통해 결과의 일반화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모든 변수를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단일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가 내재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병행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코로나제약 등 제시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향후 연구모형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유사 위기 상황에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하여 여러 변수들을 포괄한 모델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USA: W. H. Freeman, 1997.

[2] M. Salanova, S. Agut, and J. M. Peiró, "Linking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work engagement to employee performance and customer loyalty: The mediation of service climat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90, no. 6, pp. 1217-1227, Nov. 2005, doi: 10.1037/0021-9010.90.6.1217.

[3] J. W. Kim and S. J. Song, "A structural model of sense of community among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liberal phys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4, no. 4, pp. 77-97, Aug. 2015.

[4] E. Y. Cho and W. I.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oldiers' self-efficacy and military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3, no. 9, pp. 433-452, Sep. 2016, doi: 10.21509/KJYS.2016.09.23.9.433.

[5] D. W. McMillan and D. M. Chavis,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4, no. 1, pp. 6-23, Jan. 1986, doi: 10.1002/1520-6629(198601)14:1<6::AID-JCOP2290140103>3.0.CO;2-I.

[6] A. D. Stajkovic and F. Luthans, "Self-efficacy and work-related performanc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4, no. 2, pp. 240-261, Sep. 1998, doi: 10.1037/0033-2909.124.2.240.

[7] H. S. Choi and O. B. Chung, "The development of an inventory for measuring the parenting self-efficacy of Korean mot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2, no. 3, pp. 1-15, Sep. 2001.

[8] D. W. Ko and B. K.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erious leisure experienc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vol. 17, no. 1, pp. 179-198, Aug. 2016, doi: 10.21074/kjlcap.2016.17.1.179.

[9] C. H. Kim, "Analysis of the effects of public support for the arts and culture: Focusing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ubjective well-being, and adherence to art activities," Doctoral thesis, Department, Performing Arts Management, Sangmyu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21.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5767568

[10] N. A. Peterson, P. W. Speer, and D. W. McMillan, "Validation of a brief sense of community scale: Confirmation of the principal theory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6, no. 1, pp. 61-73, Jan. 2008, doi: 10.1002/jcop.20217.

[11] G. N. Park, "The effect of youth participation on a sense of community," Doctoral thesis, Department, Social Studies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08.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1565026

[12] D. W. Ko, "What makes people overcome COVID-19 pandemic?: Vulnerable or tolerable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vol. 21, no. 3, pp. 399-424, Aug. 2020, doi: 10.21074/kjlcap.2020.21.3.399.

[13] E. Diener, R. A. Emmons, R. J. Larsen, and S. Griffi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9, no. 1, pp. 71-75, Jun. 1985, doi: 10.1207/s15327752jpa4901_13.

[14] C. H. Kim,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ublic support for performing art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subjective well-being, and intention to adhere to art activit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Digital Art Engineering & Multimedia*, vol. 9, no. 4, pp. 397-409, Dec. 2022, doi: 10.29056/jdaem.2022.12.06.

[15] P. Warr, J. Barter, and G. Brownbridge, "On the independence of negative and posi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4, no. 3, pp. 644-651, Mar. 1983, doi: 10.1037/0022-3514.44.3.644.

[16] Y. J. Ryu, "The effect of personality and desire level on subjective well-being,"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1996.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757621

[17] C. H. Kim and S. J. Moon, "Artists' percep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strictions and life satisfaction: With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ublic support,"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vol. 13, no. 1, pp. 57-69, Feb. 2024, doi: 10.29056/jncist.2024.02.06.

[18] J. C. Anderson and D. W. Gerb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3, no. 3, pp. 411-423, May 1988, doi: 10.1037/0033-2909.103.3.411.

[19] R. P. Bagozzi and Y. Yi,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16, no. 1, pp. 74-94, Mar. 1988, doi: 10.1177/009207038801600107.

[20] C. Fornell and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pp. 39-50, Feb. 1981, doi: 10.1177/002224378101800104.